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에 주력할 때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월간양돈지가 창간된 지도 어언 16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월간양돈지가 국내 양돈산업을 이 끌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과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께 창간 16주년을 맞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때, 월간양돈이 국내 양돈업계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돈에 관한 기술과 정보가 절대 부족한 시기에 창간된 월간양돈은 그동안 세계의 최신 양돈기술과 정보를 신속히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양돈산업을 세계속의 양돈산업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월간양돈은 양돈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대화의 광장이 되어왔고, 우리 양돈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월간양돈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창간 16주년을 맞아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시대적으로 월간양돈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파악하여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온 GATT체제가 무너지고 금년 1월부터 WTO체제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UR협상 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일정량 이상의 돼지고기를 수입해야만 하고, 내후년 7월 1일부터는 돼지고기 시장을 전면 수입개방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죽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급박한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의 공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냉장육 유통기한 연장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고, 국내외의 동등 원칙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료곡물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과 환경오염규제 강화로 신규 양돈업 참여가 어렵고, 시설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제스키병과 PED 등 전염성 질병이 심각한 상태에 있고,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납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정부가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미국도 검사자료 공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 언론의 감시기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생산자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제도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곧
 수입개방에도 적극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딛고 외국산 돼지고기와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정확히 돼지고기 수입개방 2년을 앞두고, 우리는 온 심혈을 기울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시설현대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비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본회는 지난 2년여에 걸쳐 주요 경쟁상대국의 양돈산업 실태조사를 마쳐, 곧 보고서를 발간할 계
 획입니다. 본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쟁상대국의 생산비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
 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가 80만 양축농가들의 숙원인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부업규모 농가에 적용키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기업 농가가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부의 전업농
 육성 정책과 배치되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전 양축가가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을 받아 국
 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관계당국에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돈농가가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육류 구매 순위가 과거의 가격, 영양가, 기호성, 안전성 위주에서
 안전성, 기호성, 가격, 영양가 순으로 바뀐에 따라 안전성 문제는 식품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정부가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미국도 검사자료 공
 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 언론의 감시기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생산자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제도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곧 수입개방에도 적극 대처하는 것입니다.

본회는 수입개방을 앞두고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양돈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돼지 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시설자금의 금리 및 상환기간 연장, 질병
 피해 방지, 유해물질 잔류방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창간 16주년을 맞는 월간양돈지도 우리 양돈업계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파악하여 국내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끄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월간양돈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